

九死
十一
生

GGB 21 $\frac{9}{12}$

<구사십일생> 목차

9월은 죽었지만 11월에는 살아난다.

1. 들어가기에 앞서
 2. 수능 <영어 영역>의 답 개수 분석이 타 과목에 비해 맞을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
 3. 홀수형과 짝수형의 차이
 4. 18~20번 tip
 5. 25~28번 tip
 6. 무관한 문장 및 장문 순서
 7.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단어
 8. 빈칸추론
 9. 순서/삽입
 10. 나머지 여러 문제들
- + 마지막으로

I. 들어가기에 앞서

수능이 2주정도 남은 시점에서 영어 등급때문에 걱정을 하는 당신을 위하여.

솔직히 말하자면, 2주만에 영어 점수를 눈에 띄게 상승시키는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점수를 올릴 수만 있다면 된다.

2. 수능 <영어 영역>의 답 개수 분석이 타 과목에 비해 맞을 확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이유

이것은 단순한 찍기방법을 알려주는게 아니다.

수능영어 시험은 문제 유형과 문제 배치인 시험지 틀이 정해진 시험이다.

문제 유형에 따라 평가원에선 내기 어려운 번호가 존재하고 반대로 자주 나오는 번호도 존재한다.

-예를들면, 문맥상 낱말의 쓰임에서 ①번이 절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또는 18~20번의 답이 ①,②,③에 93%이상 집중된 것처럼.

또한 이전 선택지의 정답번호에 따라 다음 문제의 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유형도 존재한다.

필자는 현재 영어시험의 틀이 고정된 19학년도 수능부터 선지 분포를 분석하여

답이 되었던, 그리고 될 확률이 높은 선택지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동강령 및 태도를 알려주















고, 통계에 기반한 선지 판별 우선순위를 정해 시간을 단축시키며, 찍더라고 역대 평가원의

정답이 뒷받침해주는 찍기를 통해 영어 점수의 단기간의 비약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도록 돕

고자 한다.

앞으로 하는 이야기는 19학년도 수능부터를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다.

+ 작년 영어 짝기 후기 일부

- | | |
|--|--|
| <p> 14 스근하이 · 1000066 · 20/12/03 18:49 · MS 2020
영어 순서 2번다음 5번 ㄱㅇㄷ
좋아요 35 · 답글 달기 · 신고</p> | <p> 31 Clearlove · 784698 · 20/12/03 18:49 · MS 2017
찍진 않았는데 순서 25인가 52나온거 보고 소름..
좋아요 14 · 답글 달기 · 신고</p> |
| <p> 11 eylife · 952199 · 20/12/03 18:49 · MS 2020
님 레전드; 삽입 44 밀었는데 틀다맞음 ㅋㅋ
좋아요 27 · 답글 달기 · 신고</p> | <p> 30 f잘덜거야 · 913091 · 20/12/03 18:50 · MS 2019
ㅇㄱㅇㅇ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p> |
| <p> 17 아모레퍼시픽들어가고싶다 · 869604 · 20/12/03
ㅇㅇ 개이득이여여
좋아요 1 · 답글 달기 · 신고</p> | <p> 30 f잘덜거야 · 913091 · 20/12/03 18:50 · MS 2019
삽입도 3,4에 힘줘서 쉽게뒀어서 ㅇㅇ 도움힘ㅋㅋㅋ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p> |
| <p> 10 대학 가즈아! · 807129 · 20/12/03 18:55 · MS 2018
나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 ㅂㅈㄷ
좋아요 1 · 답글 달기 · 신고</p> | <p> 30 강강얌퍼럴쌔자 · 876661 · 20/12/03 18:50 · MS 2019
님 덕분에 2등 ㅠㅠㅠ
좋아요 1 · 답글 달기 · 신고</p> |
| <p> 13 엠블리e · 948878 · 20/12/03 19:07 · MS 2020
이건 ㅇㅈ 개이득
좋아요 1 · 답글 달기 · 신고</p> | <p> 13 lej2u · 837666 · 20/12/03 18:51 · MS 2018
선생님 92받고 기본종계 1 안착했습니다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p> |
| <p> 18 보리새우 · 965586 · 20/12/03 23:12 · MS 2020
저도ㅋㅋㅋㅋ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p> | <p> 35 Kesssta · 798013 · 20/12/03 18:51 · MS 2018
빈칸 555 순서22 삽입44했는데 8개중에 5개맞음 개레전드 ㅋㅋㅋㅋ
좋아요 3 · 답글 달기 · 신고</p> |
| <p> 11 용김 · 908227 · 20/12/06 14:49 · MS 2019
영어 빈칸 2로 밀어서 2점 3점 맞음 ㅅㅅㅅ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p> | <p> 28 GGB! 내 교를 해도 좋다!
영어 ㄱㅇㄷ
찍어서 2개 맞음 ㅅㅅ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p> |

-  11 연대 임포스터 · 900217 · 20/12/04 19:15 · MS 2019
찍진 않았는데 그 영어 순서문제 하나 2번나오고 다음문제 5번 나오길래 되게 안정됐어요ㅠ
감사합니다
-  13 링딩동링딩동링디기디기딩딩 · 986291 ·  49 웃고있는치타 · 887141 · 20/12/03 19:14 · MS 2019
짱수 망할..그래도 영어는 덕봤어요 감사해요..
좋아요 0 · 답글 달기 · 신고
- 

빈칸2 순서1 삽입1 찍었는데 하나 틀렸어요
-  14 흐름흐름 치킨 · 870420 · 20/12/04 00:35 · MS 2019
저 4등급이었는데 3등급으로 올랐어요 와 진짜...최고...

3. 홀수형과 짝수형의 차이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홀수형)

1	⑤	2	①	3	①	4	⑤	5	①
6	②	7	③	8	④	9	③	10	④
11	③	12	①	13	②	14	④	15	①
16	⑤	17	⑤	18	①	19	②	20	①
21	②	22	①	23	③	24	②	25	⑤
26	⑤	27	④	28	④	29	⑤	30	⑤
31	②	32	③	33	①	34	②	35	③
36	②	37	⑤	38	④	39	④	40	③
41	③	42	④	43	③	44	⑤	45	④

영어(짝수형)

1	①	2	①	3	③	4	⑤	5	①
6	②	7	①	8	④	9	③	10	④
11	①	12	③	13	④	14	②	15	①
16	⑤	17	⑤	18	③	19	①	20	②
21	②	22	①	23	②	24	③	25	⑤
26	⑤	27	④	28	④	29	⑤	30	⑤
31	②	32	③	33	②	34	⑤	35	③
36	②	37	⑤	38	④	39	④	40	③
41	③	42	④	43	③	44	⑤	45	④

주로 듣기, 18-24번 문제, 빈칸추론에서의 선지 배치가 주로 바뀐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짝수형의 선지 답 개수가 괴랄해지기도 한다.

작년수능의 듣기를 제외하고 답 개수를 ①,②,③,④,⑤ 번 순으로 세어보면

홀 : 46666

짝 : 26767

이다. 또한 홀/짝에 따라 찍기 분석이 약간 달라진다. 전체적인 답 개수는 홀수형과 짝수형이 다르지만, 빈칸을 제외한 주요 문제들은 답 배치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홀수와 짝수의 답 배치가 다른것은 각각 분석하였고 홀짝에 관계없이 선지가 바뀌지 않는 유형은 '공통'으로 표기하였다.

4. 18~20번 tip

	18	19	20
1911홀	3	1	1
1911짜	3	1	1
2006	2	3	1
2009	3	1	5
2011홀	5	1	1
2011짜	3	1	1
2106	1	2	3
2109	3	1	2
2112홀	1	2	1
2112짜	3	1	2
2206	3	1	1
2209	2	3	1

번호		①	②	③	④	⑤
18	홀				0%	7%
19		93%				
20						
18	짜				0%	3%
19		97%				
20						

18~20번 문제는 목적 파악, 심경 변화 파악, 필자의 주장을 파악하는 문제로 대부분 수험생이 쉽게 풀고 넘어가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놀랍게도 선택지 ①,②,③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심지어 9번의 시험동안 한번도 나오지 않은 선택지도 존재한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문제를 훑어 있어서 ①,②,③을 위주로 선지를 판별한다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 : ①,②,③ 위주로 보도록 하자.